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17.(화)	**사진 · 영상**	사진(o), 영상(×)
보도일자	2026년 11월 17일(화)부터		
담당부서	행정복지전문위원	**담당자**	박용민 전문위원(044-300-7440) 김빛나 주무관(044-300-7443)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 주요 시책 추진 실적 및 내년도 본예산 대비 현장 중심 대안 제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110회 정례회 기간 중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3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주요 시책들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과 다가오는 연말 및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중심으로 소관 부서별 현안 사업을 살폈다.

앞서 16일 강해정 위원은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직업군의 청년이 시정과 소통해야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청년 의견 수렴 창구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학 유치·협력 성과를 점검하며 “세종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학과 유치 등 대학 캠퍼스 활성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박범종 위원은 지역 상생을 위한 계약제도와 관련해 관내 업체 계약률이 공사 분야에서는 높은 반면 용역과 물품 분야는 저조한 점을 짚으며, 관내 업체 활용 여부가 부서마다 다르게 판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별 계약 현황을 점검해 지역 업체 참여가 용역과 물품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고향사랑기금과 관련해 기금으로 지원한 발달장애인 예술단인 돋은별예술단 사례를 언급하며,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고향사랑기금으로 넘기는 것은 기금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2027년도 기금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과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이어진 17일 회의에서 김명숙 위원은 사회보장급여 중지·감액 가구에 대해 생활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경력보유여성 취업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 연계 고용과 6개월 이상 장기 취업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시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해 전국 마라톤 대회에서 지역을 알리는 러닝팀 사례를 들며 “세종시가 홍보대사를 홍보하는 구조가 아니라, 홍보대사가 실질적으로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과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정 5기의 달라진 정책이 모든 세대에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이응패스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는 각 부서가 세운 목표가 실제로 얼마나 달성됐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라며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향후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어지는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이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8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